

## 목 차

떠나기에 앞서 -----	2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1 >	
예술과 하나 되어, 강원도 원주 -----	3
삶, 자연, 그리고 나 <모두콜 이야기>-----	4
열쭉~! 신명나는 마당극 -----	7
부처의 흔 <신록사> -----	10
영혼과 정신을 맑게..Temple stay -----	12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2 >	
작은 땅, 예술의 미(美)를 품은, 경남 밀양 -----	16
열쭉~! 우리가락 한 소절~, 밀양 아리랑 -----	18
노래와 춤이 하나 되는 그곳, 밀양 연극촌 -----	20
나 자신을 표현한다, 뮤지컬 -----	21
일기 / 메모 -----	23
비상 연락망 -----	50

## 2006 Gandhi Moving School

### 동. 서양 예술의 한마당 속으로!

배움은 학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훌륭한 교과서이며, 작은 풀잎 하나도 귀한 스승입니다.

우리 간디인들은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소중한 배움을 찾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1. 언 제: 2006년 4월 11일(화) 16:00 - 4월 27일(목) 10:00
2. 어디서: 1) 강원도 원주 모두골 (4월 11일-17일)  
2) 여주 신륵사 - Temple stay (4월 17, 18일)  
3) 밀양 연극촌 (4월 18일-4월 27일)
3. 누 가: 중 3학생 22명 (여 11명, 남 11명)  
선생님 4명(장희숙, 황선호, 손현석, 이은희)
4. 무엇을: 문화예술 체험  
(마당극 놀이, 두부 만들기, temple stay, 뮤지컬 배우기 등)
5. 이동학교 일정 개요
  - 1) 4월 11일(화) 늦은 4시 - 4월 17일(월) 이른 10시 까지 : 원주
  - 2) 4월 17일(월) 이른 10시 - 4월 18일(화) 이른 10시까지 : 신륵사 Temple stay
  - 3) 4월 18일(일) 이른 10시 - 4월 27일(월) 늦은 12시까지 : 장성에서 진주로 이동
  - 4) 6월 28일(화) 오전 - 7월5일(화) 오전 10시까지 : 진주 큰들 우리음악 체험
  - 5) 7월 3일(일) 오전 9시 - 오후 7시까지 : 진주지역 문화유적 답사
6. 준비물
  - 1) 개인준비물: 속옷(4-5벌), 세면도구, 노트, 필기구, 수저, 수건 2·3개, 침낭, 침낭깔개, 샌들, 배낭 혹은 여행용가방, 운동화, 상의 3-4장, 바지2-3장, 봄가을잠바 1개, 운동복 상,하의 1벌 혹은 긴팔 긴 바지 1벌, 모자, 양치컵, 양말(1-2켤레), 우의or우산
  - 2) 모듬 준비물: 코펠 1세트(6-7인용), 버너 1개, 밑반찬(김치, 마른 반찬, 양념 등)
  - 3) 단체준비물:

## <강원도 원주>

### 상고시대

현재 밝혀진 유적조사에 따르면, 원주지역에는 수만 년 전부터 인류가 생활하였던 것으로 추측됨  
삼한시대의 원주지역은 54개 부족구가로 형성된 마한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삼국시대

백제가 마한을 통일하였을 때에는 백제의 영토였고,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장수왕 57년(469)에는 원주 지방을 평원군이라 함

### 통일신라

문무왕 18년(678년) 전국의 행정구역을 재정비하여 9주 5소경을 설치할 때 복원소경이라 하였고, 경덕왕 때 복원경이라 함

9세기말 신라가 쇠퇴하면서 각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양길은 원주지역을 근거로 세력을 확장하여 오늘날의 강원도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세력으로 성장함

### 고려시대

고려 태조 23년(940) 복원경을 폐지하고 원주를 개칭함

성종 14년(995) 전국의 행정구역을 10도 12목으로 개편하였을 때 원주 지방은 충원도(현재 충북)에 소속됨

충렬왕 17년(1291) 합단적의 침입이 있었을 때에 향공진사 원충갑과 원주사람들이 물리친 공을 기리기 위하여 익흥도호부로 개칭됨

\* 충렬왕 34년(1308) 원주목으로 승격하여 행정의 중심지가 됨

### 조선시대

1395년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강릉도와 교주도를 합하고 강릉의 '강'자와 원주의 '원'자를 합하여 강원도라 하였고, 원주에 강원감영이 설치되어 이때부터 강원도의 수부로서 행정·치안·사회·문화 등의 중심지가 됨

1895년 5월 26일자로 전국이 23부 337군 제도로 개편되면서 원주는 충주부에 소속되었고, 1896년 8월 4일자로 팔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전국을 13도 1목 7부 331군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원주에 있던 강원도 감영은 원주에 회복되지 못하고 춘천으로 이전하게 됨

### 일제강점기

1914년 3월 1일부로 시행된 지방행정개편에 따라 원주군은 10면 67리가 됨

1937년 본부면이 원주읍으로 승격하여 원주군은 1읍 9면이 됨

### 현 대

1955년 9월 1일 법률 제372호로 원주읍은 판부면 단구리·행구리 및 호저면 우산리를 편입하여 원주시로 승격되고, 원주군은 원성군으로 개칭됨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로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하여 원주시가 됨

2005년 9월 1일 원주시제 50주년이 됨

## <원주의 소개>

### 1. 강원도 원주는...

원주시는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강원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도의 백두대간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여 서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원주시를 둘러싼 지역으로는 동쪽으로는 영월, 평창군 서쪽의 경기도 여주, 양평군 북쪽에 횡성군, 남쪽의 충청북도 충주, 제천시가 있다.

#### 1) 위치

우리가 가게 될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는 면소재지에서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에는 문막읍 궁촌리, 서쪽에는 경기도 강천면, 남쪽은 정산리와 단강리, 북쪽은 노림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 2) 유래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유배를 당하여 여기에 머물게 되었는데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遜位(손위)하고 와 있던 곳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遜位室(손위실)로 불렀고 이를 한자로 적으면서 ‘위’가 탈락되고 ‘손곡’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또는 한시로 유명한 蓀谷李達(손곡 이달) 선생이 살았다고 해서 손곡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아마 이달의 호 손곡은 손위실의 마을이름을 따서 지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강원도의 전통음식



강원도는 영서 내륙·산간지방과 영동 해안지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방마다 생산되는 산물이 크게 다르고 음식 또한 각기 특색이 있다.

내륙·산간지방은 옥수수, 감자, 메밀 등이 많이 생산되고 주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발달하였다. 산에 나는 도토리, 칩뿌리, 산채 등을 음식에 이용하였고 육류를 쓰지 않고, 소(素)음식이 많다. 이 식품들은 옛날에는 구황식품에 속하였지만 지금은 향토의 별미로 타 지역의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 되고 있다. 해안지방은 생채, 오징어, 미역 등 다양한 해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건어류와 젓갈류, 신선한 해산물로 음식 맛이 독특하다.

강원도 음식은 다른 지방처럼 사치스럽지 않고 극히 소박하고 먹음직스러우며 특히 감자, 옥수수, 메밀 산채를 이용한 음식이 많다.

#### ♣ 대표적인 향토음식

막국수, 닭갈비, 감자 용심이, 초당 순두부, 오징어순대, 울챙이국수, 칩국수, 칩송편, 메밀묵, 황기 백숙, 빵잎 막국수, 감자 시루떡

## 그 곳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 <지명전설>

#### -치악산 평 전설-



원주 치악산에 한 절이 있어 하루는 佛尊(불존) 首座(수좌)가 法堂(법당) 뒤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평을 감싸고 있었고, 구렁이와 평 이 서로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아, 이렇듯 서로가 물고 버티며 놓지 않는 다투어 있었는데, 둘이 서로 싸움하는 사이에 漁父之利(어부지리)가 가까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불존 수좌가 지팡이로 구렁이를 풀어 평을 구하니, 이날 二更(이경 밤 10시경)에 하얀 형상을 한 노인이 와서 전등의 왼쪽에 앉아 쇠불이가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나는 이내 이 절의 종을 주조하는 化主僧(화주승)이다. 사방에서 시주를 모아 자선을 베풀고자 이 큰 종을 주조하였으나 종소리가 맑지 못하여 도리어 罪業(죄업)에 대한 應報(응보)을 받았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구렁이의 뜻이었고, 지금은 재앙과 액운이 헤아릴 수 없다. 오늘 다행히 평 한 마리를 얻어 점심으로 먹으려 하였다. 그대의 자비로 이와 같이 한 번 굶주렸으니 반드시 그대를 대신으로 먹어야겠다.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를 위해 종을 쳐서 소리를 내면 이러한 추한 응보를 면할 것이니, 이것 또한 자비이다.” 하고 말이 끝나자 훌연히 떠나갔다.

의심스러워 괴상하게 여기는 사이에 앞에 있는 울리지 않던 종이 천천히 하늘 밖으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두운 속에서 한 쌍의 평을 보니 부리를 사용하여 종을 울렸다. 한 번은 소리가 크고 한 번은 소리가 작아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마디에 있었고 한 번은 암컷의 소리였고 한 번은 수컷의 소리여서 암컷과 수컷의 차례가 있었다. 一宗(일종)이 죽고 一宗(일종)이 살았으니 죽고 사는 것에는 標識(표지)가 있으며 이것이 佛門(불문)에서 禮樂(예악)을 짓는 법이다.

동틀 무렵에 노인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나는 종이 울리는 힘을 입어 얽어맸던 몸에서 벗어나 승천한다.”고 하였다. 해가 솟아 밝아 올 무렵에 가서 보니 금구렁이 한 마리가 남쪽 처마 아래에 죽어있으므로 僧(승)이 죽었을 때와 같이 장사지냈다.

아, 평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목숨을 구해준 승의 은혜를 보답했고 승은 평의 목숨을 구해준 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구하는 보답을 받았다. 구렁이는 승으로 인하여 생명을 아껴 평을 살려 주었고 평으로 인하여 쌓았던 億劫(억겁)의 고통을 벗었으니 이것이 一攀三得(일거삼득)이다. 사물은 비록 같지 않았으나 세상에서 뛰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雉樂(치악)으로서 그 산의 이름이라 하고 종을 쳤던 소리로써 온 나라의 사찰에 퍼졌다고 한다.

- 해남 대흥사에서 1921년 발간한 「범해선사」문집 중의 ‘雌雄鐘氣(자웅종기)
- 『월주월 9호』에서 발췌

## <모두골 이야기>

### 1. 탄생의 배경...

모두골은 시대의 흐름이 낳은 잘못된 탄생으로부터 출발한다.

1980년 원주지역 출신들의 선배들이 그들의 학교에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서 활동하다가 수배, 재적등을 당하고 고향에 머물게 된다. 이때, 원주에서는 지학순, 장일순, 김지하등 쟁쟁한 인사들이 천주교 원동성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위한 싸움의 진지를 구축하고 전쟁을 치르던 곳이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은 결국 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구심의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선술집에서 만나면 원주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대학 내에서 탈패 활동을 하던 친구들이 여럿이 있기에 원주지역에서도 탈춤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의하고 1981년 1월 21일 원주민속연구회를 창립함과 동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산탈춤 강습회를 개최하게 되고 그 1기 강습회 때부터 발을 들여놓은 몇몇 젊은이들이 평생 되돌아 올 수 없는 길 아닌 길을 가게 된다. 그 뒤로 연 2회씩 87년도 까지 진행되어 수백 명의 강습생들을 배출하고 그들은 87년 민주화 투쟁과 지역 내에서의 노동운동, 시민자치 운동, 생명 운동 등의 중요한 역할과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88년, 원주민속연구회에서 통일문화연구회, 놀이패 골굿패, 사회운동연합으로 구조를 변경해오면서 전문 문화예술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기획실 “모두골”을 설립하게 된다.

문화기획실 “모두골”은 전문문화기획실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활동하다 운영의 미숙과 당시 지역 내에서의 진보정치운동의 한계와 진통을 겪으면서 잠시 공식적인 활동을 멈추게 되자 그 속에서 활동하던 정대호가 다시 문화기획실 “모두골”의 간판을 걸고 전문 문화패로서의 활동을 재개하게 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다.

### 2. 모두골은 왜 농촌으로 들어왔는가?

97년까지 정대호 씨가 홀로 모두골을 운영해오다시피 하던 상황에서 같이 활동하던 이지원 씨와 이바우 씨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인연이 닿아 원주에 정착하여 모두골 식구가 되면서부터 모두골은 전문 문화패로서의 면모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은 심리적 현실적 압박을 가해왔고 그러던 중 모두골은 시골로 들어가 정착하게 된다. 내부 구성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통해 얻은 꿈같은 이상과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유와 민족예술이라는 간판을 달고 평생을 그 그림자에 매달릴 것이라면 몸소 농촌에 들어가 삶 속에서 체득해보자는 그럴싸한 명분을 들어 시골로 가기로 결심한다.

처음 정착하게 된 곳이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영산부락이라는 마을이다. 15가구가 사는 마을에 빈집을 수리하고외양간을 고쳐서 한 지붕 3가족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했다.

시골로 정착하면서 모든 일이 안정이 되어갔고 다시 되찾은 마음의 여유와 넓어진 시야는 “사라져 간 마을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라는 목적의식을 마련해주었다.

그들은 작품을 구상함에 있어서 마을문화의 정서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은 그들도 모르게 스며들어 자연스레 표출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일상의 작은 생활부분에서도 자연을 통해 진리를 통해 더 많은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굳은 책임과 사명감을 가진다.

그들은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한다.

진정으로 문화예술가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농촌에 들어가 몸소 직접 체험해 보라고..그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만끽할 때 문화예술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소중한 심성의 바탕을 얻게 될 수 있다고...

## 신명나게 놀아보세~!!

### <마당극>

근대 이전의 전통연희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한국적인 연극 양식이다. 우리의 근대극이 서양의 근대극의 이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성으로 1970년대 탈춤부흥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양식은 대학가에서 운동 형태를 띠면서 시작되었는데 민중의 연극으로 이행해가면서 폭넓은 계층에 수용되었다.

이것은 표현형식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 본래의 민중연극으로서의 이념, 즉 연극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가깝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 공동체적 일체감을 확보하려고 한다. 공연의 대부분이 행사적 공연의 성격을 지니며 관중은 그곳에 함께 모여서 동질성을 느끼고 참여의식을 갖는다.

축제나 행사에서 하는 마당극은 행사의 다른 프로그램과 어우러져야 하며, 관중을 연극 공연으로 이끌어오고, 연극이 끝난 후에는 생활로 되돌아가게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관중이 흩어져 있으면 풍물패를 앞세운 길놀이를 하거나, 모인 관중에게는 그들이 극 진행과정에서도 집단성과 자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박수치고 소리 지르는 연습을 하기도 한다.

내용은 주로 관중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룬다. 많은 마당극들이 사회 현실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의 발전과정이 진보적 연극운동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알려진 고전을 소재로 한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마당놀이라고 부르는 마당극은 예외이다.

인물의 움직임이 중요한 연극이므로 하층민들이 많이 등장한다. 주인공들은 흔히 치명적이지 않은 결함을 지니고 있고, 생활 속에서 지혜를 얻는 인물로 이러한 인물들은 대개 낙관적이고 해학적이다. 미(美)나 숭고함보다는 추(醜)와 비속(卑俗)이 두드러지고, 서민적 비애, 풍자와 해학이 두드러진다.

주로 땅바닥이나 마룻바닥 같은 곳에 관중이 둘러앉는 열려진 원형판에서 공연된다. 원으로 객석에 열려진 마당판은 관중의 적극성과 자발성을 유도하고 관중은 배우를 보고 웃기도 하지만 맞은편 관객이 웃는 모습을 보고 따라 웃기도 한다.

배우들은 극 전체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적절히 즉흥적 응답을 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배우와 관중이 서로 집단적인 대화를 하듯 호흡하고 그것은 신명을 유발한다.

의상과 분장이 사실적이기보다는 특징적이며, 탈을 쓰기도 한다. 무대는 세트를 거의 쓰지 않고 한쪽에 대형 걸개그림을 걸거나 깃발,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긴 천 등이 스펙터클을 만들어준다.

음악과 음향은 사물(뿡과리·징·장구·북)로 길놀이에서부터 춤의 반주, 효과음 등을 두루 사용한다.

## 『 30주년 맞은 마당극 』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민중 운동과 함께 태동한 마당극이 공연 30주년을 맞았다.

사단법인 한국민족극운동협회(이사장 채희완.이하 민극협)는 13일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마당극 30주년을 기념하는 조출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들은 "1974년 '소리굿 아구'가 공연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전에도 마당극과 비슷한 연희 양식은 있었지만, 현실 비판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담은 공연 양식으로서 마당극은 '소리굿 아구'가 최초"라고 30주년의 연원을 설명했다.

1973년 김지하 시인이 '진오귀'를 쓰고 농촌 계몽 운동용으로 선보였으나, 전문 공연이라 하기에는 배우들의 수준 등의 측면에서 무리가 따른다는 것.

김시인의 작품을 마당극의 태동으로 본다면, 이듬해인 74년 극단 학전의 김민기 대표가 대본을 쓰고 서울대 음대 작곡과를 갓 졸업한 이종구 씨의 졸업 공연 형식으로 당시 국립극장 소극장(현재 달오름 극장)에서 공연된 '소리굿 아구'가 본격적 효시라는 말이다.

'소리굿 아구'는 당시 유행했던 일본인 기생관광을 비판한 작품으로, 초대 주인공인 '김아구'는 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의 김석만 교수가 맡았고 장선우 감독, 연극연출가 임진택 씨 등도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은 "소리굿 이라는 말은 '음악극'을 적당한 우리말로 바꾸려다가 김민기씨가 붙인 이름"이라며 "본격적으로 '마당극'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상우 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가 1976년 서울대 감골마당에서 '허생전'을 공연하면서부터"라고도 소개했다.

그간 마당극 운동은 문화예술계에 암암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총체극 형식의 마당극에서 활동하던 무대미술가, 안무가, 음악가들이 이후 민중 미술, 음악, 무용계열 예술가들로 영역을 넓혔으며, 마당극의 세례를 받은 인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당장 연극만 해도 앞서 거론했던 인물들 외에 김명곤 국립극장 극장장이 마당극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이며, 지금은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강호도 부산에서 민극협 회원으로 활동하다 연우 무대를 거쳐 영화에 입성한 케이스.

그러나 마당극을 거쳐 간 인물들의 활발한 활동과는 대조적으로 마당극 자체는 주류 연극과는 유리되는 추세다. 서울 대학로 중심의 주류 연극과는 대조적으로 지방 위주의 공연을 펼치는데다, 일반적 인 극장 무대와는 연희 양식 자체가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실내 공연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때 서울과 대학로에서도 활동했었지만, 점차 현장과 괴리되고 마당극의 본래 목표와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관객과 보다 가깝게 기층 현장으로 들어가는 각개약진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방으로 들어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프로시니엄 무대는 근대 연극을 위한 무대일 뿐, 밀접한 소통을 원하는 현대 관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마당극적 양식들이 다양한 경로로 차용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명제는 스스로에게도 적용된다.

"과거에는 정치적 문화투쟁이라고 할 만큼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비난이 통용됐지요. 그러한 '공공의 적'은 사라졌지만, 현실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이 수면 밑으로 잠수를 시작한 것뿐이고, 그만큼 공격이 어려워진 거지요. 이전에는 거대 담론과 도식화한 사회과학으로 공연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보다 작은 이야기의 이면들을 보는 거지요"

이들은 이어 "최근 우리를 둘러싼 외부 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 자체의 폐해가 또 있겠지만, 일단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극협은 지난 30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에 대한 진지한 모색의 의미를 담은 '총체탈극'을 23일부터 이틀간 광주, 나주, 목포를 돌아가며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공연은 마당극 주제의 폭을 생명, 환경에까지 넓히고, 그 연희 양식과 규모도 '총체극'이라 불릴 정도로 더욱 개방한 형식을 취할 것"이라며 "민중 운동의 고향인 '광주'로부터 공연을 시작, 이제 새로운 굽이를 넘어간다는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 <여주와 신륵사>



<신륵사 중수기현판 重修記懸板>

조선 초기 학승(學僧)인 신미(信眉)의 제자였던 김수온은 “여주는 국토의 상류에 위치하여 산이 맑고 물이 아름다워 낙토(樂土)라 불리었는데 신륵사가 이형승의 복판에 있다.”고 칭송하였다. 이렇듯 풍광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 신륵사는 상류인 여강(驪江)의 물이 감싸 안은 나지막한 봉미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고찰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찰들이 깊숙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비해 신륵사는 푸른 물줄기와 드넓은 모랫벌, 그리고 넓은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신륵사는 창건 이래로 보제존자(普濟尊者) 나옹화상(懶翁和尚)과 같은 고승대덕이 지냈던 곳이며 더불어 그 경관이 뛰어난 사찰로 이름이 높다. 조선 후기 문인 김병익은 <신륵사중수기>에서 신륵사의 명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절을 세우고 폐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 될 수 없거니와 유학자로서도 이를 위하여 노력할 일은 아니지만, 절을 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고적이 명승지로 이름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신륵사라는 절은 고려시대의 나옹이 머물러 있었으며 항상 아름다운 경치는 물론이고 또한 높은 탑과 오래된 비가 늘어진 것이 예스러워 목은(牧隱)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이 시로써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였다. 여주는 산수가 청수하고 그윽하며 또한 평원하고 조망이 좋으며, 이와 더불어 신륵사는 높고 서늘한 것이 겸하여 있으니 그 경치가 절승한 지경과 같다. 오직 이 두 가지 이유로 온 나라에서 일컬어 온지가 이미 천년이나 되었으니 비록 내가 절을 세우지 못 할망정 폐할 수 있겠는가.’

신륵사 중수기는 세종의 능인 영릉(英陵)을 여주로 옮기면서 영릉의 원찰로 신륵사를 다시 중건하자는 내용이 담긴 글이다. 이와 같이 신륵사와 여주의 뛰어난 경관이 전국에 알려진 지 천년이나 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여주와 신륵사의 아름다움은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주의 아름다운 경치 여덟 가지를 들어 여주팔경(驪州八景)으로 일컬으며, 그 첫 번째가 바로 신륵사이니, 신륵사는 수승한 경관과 오랜 역사로 인하여 여주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온 곳임을 알 수 있다.

## <오늘날의 신륵사>



신륵사는 1858년 헌종의 조모인 순원왕후純元王后的 발원에 의하여 호조판서 김병기金炳冀에게 명하여 절을 크게 중수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영릉의 원찰로서 의미가 약해지면서 다시 신륵사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근.현대사에 있어 신륵사의 활동은 크게 알려지지 않으나, 1925년 열반당 14칸을 새로 짓고, 1929년 강성인 姜性仁스님이 주지 재임시 김인주 金仁柱가 화주化主로 명부전을 중건하였다.

신륵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龍珠寺의 말사末寺로 편입된 것은 1955년부터이다. 1962년 통합종단 발족이후 지금까지 주지로 재임하신 스님은 다음과 같다.

1대 원종스님(62.10.11), 2대 성호스님(67.3.3), 3.4.5대 정대스님(70.9.21), 6대 성주스님(81.4.11), 7대 정대스님(81.7.27), 8대 정무스님(83.6.2), 9.10대 원경스님(87.6.4), 11.12대 세영스님(95.6.8)

정대正大스님은 1978년 종각을 신축하는 한편, 극락보전과 구룡루, 조사당등의 전각을 중수. 단청하였다. 정무스님은 요사체인 심검당을 건립하였고, 중.고등학교 학생법회를 신설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 포교 활동에 힘을 쏟았다. 원경스님은 일주문을 건립(1994)하고, 신륵사 앞 강변을 매립하여 도량을 확장하였다. 현재 주지인 세영스님은 적묵당을 증.개축하였고, 명부전을 비롯한 종각, 비각, 조사당 등의 건물을 보수하고 구룡루 앞을 정비하여 석축을 쌓는 등 그 면모를 일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화의 고장인 여주에 자리 잡고 있는 신륵사는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와 역사의 교육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포교와 복지 활동에 중점을 두어 1998년 개원한 신륵사 부설 연꽃어린이집은 여주 관내의 어린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명소가 되었다. 정무스님 주지 재임시부터 관심 있게 추진해 온 청소년 신행활동은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법회가 부활되어 활발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매년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매년 여주교육청과 함께 나옹스님을 기념하는 의미의 나옹백일장을 개최하여 여주 지역 초.중.고등학교학생 500여명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여주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듯 신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포교활동과 문화활동은 이전처럼 사찰이 관광지로서의 역할등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서 자리 매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 템플스테이(Temple stay..)

템플스테이는 자연환경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사찰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휴식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1,700여 년 민족의 정신문화사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불교는 이 땅의 사찰 하나하나마다에 전통문화의 향기와 수행자의 정갈한 삶을 담게 했습니다.

사찰에서의 하루는 아침예불 종성을 들으며 깨어나서 맑은 음식으로 공양을 하고 단정히 앉아 마음을 비우는 참선을 통해서 정신적 풍요를 만들어 나갑니다.

때로는 고즈넉한 숲길을 산책하면서 일상의 집착을 잠시 벗어나기도 하고 차 한 잔을 음미하면서 서로 소중한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템플스테이는 이렇듯 일상에서 잊어버린 전통문화의 향훈과 자연과 하나 되는 마음 자세에서 본래 내 모습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갖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생활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템플 스테이 속의 이모저모..>

**새벽예불 “새벽을 여는 목탁소리, 하루가 시작되다.”**



모든 것들이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새벽 4시... 이 때 어둠을 가르면서 산사의 새벽을 깨우는 목탁소리가 울립니다. 도량석은 중생의 번뇌를 잠재우고 진리의 세계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범고, 운판, 목어, 범종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집니다.

수련생들은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서 사물의 소리를 들으면서 법당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법당의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예불의식에 따라 스님의 낭랑한 목소리로 오분향례를 모시고 ‘지심귀명례’로 시작하는 칠정례의 예경문을 다 함께 봉송하고서 반야심경으로 전 의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벽 예불을 올림으로써 산사의 하루는 시작되며, 산사의 모든 사물들도 생기를 얻게 됩니다.

**발우공양 “음식, 부처의 씨앗을 키운다.”**



발우는 스님이 쓰는 밥그릇이며 ‘적당한 양을 담은 밥그릇’이란 뜻이며, 스님들이 발우로 행하는 식사를 발우공양이라 합니다. 발우공양은 수행의 한 과정으로 행하기 때문에 범공양이라고도 합니다.

발우공양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며 음식을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고 해서 평등정신을, 철저히 위생적이고 조금의 낭비도 없기 때문에 청결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육신의 탐착을 채우기 위하여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공양할 뿐이요, 모든 생명 존재들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다 함께 행복함을 위하여 공양합니다.

### 발우 공양하는 마음자세(오관계)

“공양 공덕 헤아리고 음식 온 곳 생각하니  
나의 덕행 돌아보아 공양 받기 부끄럽네.  
마음 허물 벗어나고 탐진치를 여의어서  
이 음식을 양약삼아 몸의 허약 다스리고  
도업 성취하기 위해 이 음식을 받습니다.”

### 참선 “내 안에 숨어있는 진리를 일깨운다.”



참선은 마음을 통일하여 잡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며, 그리하여 진정한 자기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선은 고차원의 명상 수행법 가운데 하나이며 참선을 통하여 모든 분별 시비를 초월하여 마음 그것을 바로 보아 궁극적인 깨달음을 체득하고 거룩한 부처의 자리를 이루어 가는 마음 수련 방법입니다.

참선 명상을 수련하는데 가장 기초 단계는 바로 호흡을 통하여 마음을 갈무리해 갑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신진대사 활동을 의식적으로 감지하는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흡의 진행 상태를 깨어 있는 마음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그 숨의 왕래를 헤아리는 수련을 통하여 밖으로 치달리는 자신의 의식 활동을 내 안으로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수련이 자리 잡게 되면 ‘화두’라는 의심덩어리를 가지고 수행하는 ‘간화선’ 좌선 명상으로 한 단계 승화시켜 수련하게 됩니다.

다도 “차 한 잔의 여유, 道와 함께 하다.”



한 잔의 차로써 마음을 밝힌다면 그것이 바로 다도가 될 것입니다. 차와 함께 하는 생활은 마치 동양화의 여백과 같이 바쁜 일상에 여유와 안정을 되찾게 해주며 마음을 담은 정성과 절제된 의식절차에 의하여 우려낸 차를 함께 마실 때 이것은 도(道)와 함께 하는 것이며 차를 마시면서 고요한 마음속에서 향과 색과미를 음미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선(禪)이라고 옛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옥화 한 잔 기울이니 겨드랑에 바람 일어

몸 가볍다 하마 벌써 맑은 곳에 올랐구나.

밝은 달은 촛불이요 또 나의 벗이로다.

흰 구름 자리 펴고 병풍도 치는구나.”

<경상도 밀양은...>



**삼한시대**

변진 24개국 중 “미리미동국”이라는 작은 부족국가로 추정되고 변한의 땅으로 가락국에 속하였다.

**신라시대**

지증왕 6년(505)에 “미리미동국”을 신라에 병합하여 “추화군”을 두었다.

경덕왕 16년(757)에 전국을 9주로 나누고 군현의 명칭을 고칠 때 “밀성군”이라 하고 밀주의 관내에 소속시키면서 5개의 속현을 두었다.

**고려시대**

성종14년(995)에 전국을 4도호부 10도로 구분할 때 경주와 함께 영동도(嶺東道)에 속했으며, 밀성군의 격을 높여 “밀주군”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2군(창녕군, 청도군) 4현(현풍현, 계성현, 영산현, 풍각현)을 관하에 두었다.

현종9년(1018) “밀성군사”로 칭하였다.

충렬왕 원년(1275) 조천의 반란으로 계림부에 속하다가 후에 “밀성현”으로 승격되었다.

충렬왕11년(1285) “밀성군”으로 승격되었다.

공양왕2년(1390) “밀양부”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

태조 원년(1392) “밀성군”으로 칭하다 태조 3년(1394) “밀성부”로 다시 환원되었다.

태종 원년(1401) “밀성군”으로 되었다가 태종 15년(1415) 주민의 호수를 기준으로 천호 이상의 고을을 모두 도호부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밀양 도호부”로 되었다.

고종 32년(1895) 칙령 제98호에 의거 23부제 실시로 소지역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도이하의 부·목·군·현도 폐지되고 전국이 36군으로 개편될 때 “대구부 밀양군(시지역은 부내면)”으로 되었다.



고종 33년(1896) 칙령 제36호로 경상남도 밀양군으로 개칭되었다.

#### 근대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관제의 공포와 동시에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가 공포되고 면제의 실시  
에 따라 1910년 10월 1일부로 “밀양군 밀양면”으로 되었다.

1914년 3월 1일 면의 명칭 및 구역이 합병되어 12면을 두었다.

1931년 4월 1일 읍제 시행에 따라 부령 제103호로 대전, 순천, 안동등과 함께 밀양면이 “밀양읍”으  
로 승격되었다.



#### 현대

1963년 1월 1일 법령 제1177호로 삼랑진면이 “삼랑진읍”으로 승격되었다.

1966년 7월 15일 군조례 제103호로 삼랑진읍 “임천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로 하남면이 “하남읍”으로 승격되었다.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로 밀양읍이 “밀양시”로 승격되어 밀양시(6동 28통 316반)와 밀양군  
(2읍, 9면)으로 분리되었다.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로 밀양시, 밀양군 통합으로 “도·농 복합형의 밀양시”(2읍, 9면, 6  
동)가 설치되었다.

1998년 9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거 인구 5,000명 미만 과소동 통합으로 “행정동 용화동  
을 내일동에 통합”(2읍, 9면, 5동)이 되었다.

<우리가락 한 소절. 얼썩! 지화자! 좋오~타!!>

### <밀양 아리랑>

#### 1. 악곡 해설

경상도 민요

장단 : 세마치장단(9/8박자)

형식 : 메기고 받는 형식(민요 형식)

장구 반주 : 장구를 반주할 때에는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을 골고루 섞어 연주하고 노래에 비해 음량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메기는 소리를 부를 때는 장구의 채편의 변죽을 치고, 받는 소리를 부를 때에는 복판을 치는 등 노래의 음량과 리듬을 생각하며 반주해야 한다.

## 밀양 아리랑

경상도 민요

세마치 장단(조금 빠르거)



날 좀 보 - - 소    날 좀 보 - - 소    날    좀 - - 보 - - 소    - - - -  
정든 남 - - 이    오셨 는 - - 데    인    사 - 도 못 - - 해    - - - -



동지 선 달 - -    꽃본 듯 - 이 -    날    좀 - - 보 - - 소    - - - -  
행주 치 마 - -    입에 물 - 고 -    입    만 - 방 - - 곳    - - - -



아 리 아 리랑    스 리 스 리랑    아라 리 - 가나 - -    네    - - - -



아 리 랑 - -    고    개 - 로 -    날    넘 - 겨 주 - -    소    - - - -

## 밀양 아리랑의 전설 <아랑의 전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이조 명종 때 밀양 윤부사의 무남독녀인 동옥이란 처녀가 있었다. 동옥 즉 아랑은 재주가 뛰어날 뿐 아니라, 용모가 남달리 아름다워 부근 총각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이 고을 관노인 통인 주기가 신분도 잇은 채 아랑을 흠모하기 시작했다. 주기는 아랑을 유인해낼 방법으로 아랑의 유모를 돈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아랑의 유모는 휘영청 달이 밝은 날 아랑에게 달구경을 가자며 영남루 뜰로 데리고나온 후 소피를 보러 간다며 사라졌다. 유모가 자리를 피하자 아랑에게로 접근한 주기는 아랑을 겁간하려했으나 아랑의 거센 반항 때문에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비수를 끄집어내어 아랑을 위협했다.

아랑은 정조를 지키기 위해 반항하다 결국에는 주기의 비수에 찔려죽고 말았다. 다음날 아랑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퍼지고 아랑의 종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윤부사는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다 딸을 찾지 못한 채 서울로 올라가고 말았다.

윤부사가 떠난 후 새로운 부사들이 부임 했지만, 첫 날밤에 원인도 모르게 급사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이 몇 번 되풀이 된 후로는 밀양부사로 오려는 사람이 없었다.

폐군이 될 지경에 젊은 붓장사 한 명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사나 한번하고 죽자는 마음으로 밀양부사를 자원했다. 밤이 되자 신임부사 앞에 피투성이가 된 처녀가 홀연히 나타났다. 그 처녀는 다름이 아닌 아랑이었다.

아랑은 모든 이야기를 한 후 내일아침 나비가 되어 자기를 죽인 관노의 갓에 앉겠다는 말을 끝으로 하직인사를 한 후 사라졌다. 이튿날 부사는 관속들을 모두 모이도록 명했다. 흰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관노의 갓 위에 앉는 것이었다. 부사는 형방을 불러 그 관노를 묶어 앞에 앉히도록 한 후 주기를 다스렸다. 극구 부인하던 주기도 곤장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인지 아랑을 죽이고 영남루앞 대숲에 던진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곳에는 아랑의 시체가 원한에 맺혀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주기를 죽여 아랑의 원수를 갚아 주고 난 후부터는 아랑의 원혼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고을도 태평해졌다.

그 후 아랑의 시체가 있던 자리에 비를 세우고 그 옆에 사당을 지었는데 지금도 아랑의 높은 정절을 추모하기 위해 해마다 음력 4월 16日 제관을 뽑아 원혼을 달래며 제향을 드리고 있다.



## <밀양 연극촌은...>

연희단 거리패가 안고 있는 지상명제는 전통과 변증법적 연극으로서의 우리 연극방식 구축으로, 90년대에 들어서부터 상황극에서 벗어나 우리극의 메소드를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거리극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로인해 탄생된 「오구」, 「죽음의 형식」, 「바보각시」, 「산너머 개똥아」, 「햄릿」, 「가인 느낌」, 「극락같은 어머니」 등의 래퍼토리 작품들은 관객들의 수많은 사랑을 받았고 연극분야의 여러 부분의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겨주었으며 또한 오구- 죽음의 형식 바보각시 산너머 개똥아 햄릿 어머니는 일본, 러시아, 독일 해외에서도 공연되어 우리 극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밀양 연극촌은 연극제작, 교육, 포럼 등 다양한 연극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종합 예술촌으로 성장하기 위해 5000평 대지위에 야외극장, 실내 스튜디오극장, 게릴라 천막극장, 대 연습실, 무대 제작실, 의상 제작실, 숙소, 춤꾼 하보경 기념관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연극 공연활동과 연구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서 활동하던 60여명의 프로단원들이 지난 99년 9월 입촌하여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왔고, 2000년 6월부터는 '숲의 극장'이라는 500석 규모의 야외무대와 실내 스튜디오극장을 마련하여, 주말공연의 시행으로 밀양 시민과의 만남을 실천하였다. 2001년부터 개최한 <밀양공연예술축제>는 젊은 연극인들의 만남의 장을 열어주었으며 스튜디오극장, 숲의 극장을 비롯하여 밀양 실내체육관에서도 꾸준히 공연을 올리면서 명실 공히 밀양의 자랑이자 경남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

## <뮤지컬의 역사와 종류>

먼저 1920년대 후반에서 40년대까지는 유성영화와 뮤지컬이 만나는 시기이다.

뮤지컬 초창기 작품형식은 대부분 가볍고 발랄한 재즈 음악을 기반으로 한 낙관적인 뮤지컬 코미디 형식이었다.

이 시대의 작품들은 뮤지컬 영화 <브로드웨이 멜로디>, <singing in the rain(사랑은 비를 타고)>, <오즈의 마법사>등이 있었고 뮤지컬 노래와 춤이 주는 환상을 극대화시켜 관객이 영화관을 찾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40년대 중반에서 50년대 후반은 아메리칸 포크 오페라와 북 뮤지컬의 완성시대이다.

2차 세계대전 후부터 50년대 후반까지의 이 시기는 뮤지컬의 황금기이다. 뮤지컬 코미디와 신화, 셰익스피어극, 당대 유명 극작가의 작품까지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작품들이 올려졌다. 재즈와 클래식이 결합했고 이런 형식을 **아메리칸 포크 오페라 스타일**이라고 한다.

이후 이 형식은 브로드웨이 황금기의 중심적인 음악 형식이 되었다. 이때의 주요작품은 <포기와 베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등이 있다.

그리고 북 뮤지컬은 대사가 대본의 절반에 가깝고 탄탄한 스토리에 아름다운 음악이 결합된 형식의 뮤지컬을 말한다. 최초의 북 뮤지컬은 <오클라호마>로, 이후 <회전목마> <사운드 오브 뮤직> <마이 페어 레이디> 등의 북 뮤지컬 작품이 탄생했다.

다음은 록 뮤지컬의 시대이다. 1960년대 초부터 70년대까지를 말한다.

50년대 후반까지는 재즈에 기반 했던 뮤지컬 음악이 60년대로 오면서 우크라이나 민속음악을 차용한 <지붕위의 바이올린>, 스페인 민속음악의 <라만차의 사나이> 나치 시대 동독의 카바레 음악을 끌어 들인 <카바레> 등 제 3세계의 음악으로 변저나가기 시작했다. 사이키델릭 록을 기반으로 한 <헤어>같은 작품에 젊은이들은 열광했고 이후 <록키 호러 쇼>, <그리스> 그리고 록 뮤지컬의 대명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등이 등장했다.

이번엔 유럽 뮤지컬과 컨셉트 뮤지컬 순서이다.

1980년대엔 <브로드웨이 42번가> <년센스>정도의 작품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리바이벌 작품이나 유럽 뮤지컬과 손드하임 감독의 작품이다. 당시의 유명한 유럽 뮤지컬 작품은 <올리버> <에비타> 정도가 있다.

손드하임 감독의 컨셉트 뮤지컬의 기본 개념은 각 인물만의 멜로디와 리듬, 화성 등을 주고 이것을 이야기 진행과 함께 엮어나가는 것으로 바그너의 오페라 개념을 실현한 것이다. <스위니 토드> <조지와 함께 공원을> <숲속으로> <패션>같은 작품들로 뮤지컬의 영역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했다고 한다.

1990년대로부터 현재까지는 패러디, 크로스오버 등 뮤지컬 장르나 형식적인 구분이 모호해졌다.

<흡혈식물 대소동>과 같은 엽기적이고 황당한 내용의 작품이 나오는가 하면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 <아이다> 등이 등장하고 <렌트>를 시발점으로 해서 옴니버스 식 구성의 <브링 인더 노이즈, 브링 인더 펑크> 댄스 플레이 <컨택트> 등이 무대에 올려졌다.

## <뮤지컬의 구성요소>

### 음악(Music)

뮤지컬에서 음악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가사를 통해 메시지와 내용을 상당부분 전달하기 때문에 노래에 대해 알고 있으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뮤지컬의 노래들은 뮤지컬 넘버라고 부르는데 뮤지컬에는 노래뿐 아니라 서곡, 막간곡, 퇴장 음악 등이 있고 춤을 위한 곡과 대사에 깔리는 배경 음악 등도 있다. 뮤지컬 노래는 작품의 분위기에 맞게 만들어지며 가사 역시 상황의 스타일, 부르는 사람, 극중 인물의 성격, 내용전개에서 극적인 부분을 다 소화하게 되므로 멜로디만 듣기보다 왜 그 장면에서 그런 음악을 쓴 것인지 담긴 메시지를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

- . 발라드 송 Ballad song - 가사보다 연주가 우위를 차지하는 곡으로 러브 송이라고도 한다.
- . 코미디 송 Comedy song - 연주가 가사에 따라오는 경우로 노래가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것.
- . 참 송 Charm song - 발라드 송과 코미디 송의 중간 정도로, 낭만적인 내용으로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매혹(charm)시키기 위한 노래.
- . 아이 엠 송 I am song - 관중들에게 등장인물이나 감정 등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노래.
- . 스페셜 머티어리얼 Special Material - 극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클라이맥스 분위기를 내기 위한 노래로 합창이 되기도 한다.

### 춤(Dance)

뮤지컬에서 춤은 에너지를 느끼게 해줄 뿐 아니 불거리를 제공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춤은 대사나 노래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감정을 극대화시켜 표현할 수 있어 연기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사랑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듀엣,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단체 춤은 뮤지컬을 보는 초점이 된다.

- . 오프닝 넘버 Opening number - 작품 처음에 등장하는 분위기 조성용 춤.
- . 독무 Solo - 한 명의 배우가 인물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것.
- . 듀엣 Duet - 남녀 주인공이 함께 나와 낭만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춤.
- . 앙상블 Ensemble - 극중 남녀 주인공의 화합과 대립을 보여주는 것.
- . 프로덕션 넘버 Production number - 장엄하고 스펙터클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단체로 추는 춤.
- . 발레 시퀀스 Ballet Sequence - 액션을 강화시키거나 논쟁, 대립을 유발시킬 때 추는 춤.

### 극본(Script)

극본은 곧 작품의 내용이다. 아무리 춤과 노래가 주를 이루는 것이 뮤지컬이지만 내용 없이 갈 수는 없다. 때문에 뮤지컬 극본은 작품 전체뿐 아니라 음악과 춤의 기본 바탕이 된다. 극본이 쓰인 후에야 비로소 그에 따라 가사, 곡, 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극본에는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극본이 탄탄해야 이어서 만들어지는 가사, 곡, 춤 역시 컨셉트가 충분히 살아있게 된다.